

## 楊誠齋와 李退溪 매화시의 도학자적 심미관

盧垠靜\*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道學': 삶의 이정표
3. '清真': 이상적 영혼의 화신
4. '梅兄': 도학자적 유대감의 상징
5. 나오는 말

### 1. 들어가며

南宋의 시단에 있어서 四大家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던 誠齋 楊萬里(1127-1206)와 조선시대의 걸출한 유학자인 退溪 李滉(1501-1570)은 모두 매화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사랑하는 매화에 대한 마음을 담아 매화시를 남겼다.

南宋의 대표적 시인이면서 유학자로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楊萬里와 조선 성리학의 대가인 退溪가 유달리 매화에 대해 많은 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이들이 매화를 단순히 완상물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세계를 표상하는 등가적 존재로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고, 장미와 백합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꽃이라면, 매화는 당연히 유교를 상징하는 꽃으로는 꼽힐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에서 唐·宋을 거치며 창작된 많은 매화시 속에서 형성된 상징성 때문이다. 설달 눈보라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의 생물학적 속성은 '봄의 선도자', '陽氣의

전령사'라는 상징성을 갖게 했고, 이러한 속성은 다시 인문적으로 확대되어 '절조가 빼어난 사람' 또는 '고결한 기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하였다. 매화가 의미하는 인문적 상징성은 바로 유교적 이상 인격, 즉 선비상이었다. 매화는 시를 통한 상징화를 거쳐 宋代에는 소나무·대나무와 함께 '歲寒三友'로, 明代에 이르러서는 난초·국화·대나무와 함께 '四君子'로 일컬어졌다.1) 매화에 대한 楊萬里와 退溪의 사랑은 바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인격에 대한 숭배였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한 다짐이었다.

退溪의 매화시를 연구한 논문들은 수량적인 측면에서 종종 陸游와 退溪를 비교를 한다.2) 그러나 退溪가 《梅花詩帖》을 엮으면서 자필로 <再訪陶山梅十絶>3)에 주를 달아 楊萬里의 매화시를 언급한 것과, 楊萬里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 '梅兄'이라는 호칭이4) 退溪의 매화시에서도 빈번히 보이는 것을 보면, 退溪의 매화시는 陸游보다는 楊萬里의 매화시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5)

본고에서는 학자이며 사상가이자 시인으로 살았던 楊萬里와 退溪가 남긴 매화시를 통해 '癖'이라고 불릴 만큼 집착적이었던 매화에 대한 미적 인식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그들이 매화를 단순히 인격화 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존중의 뜻까지 포함하여 '梅兄'이라고 호칭했던 것에서 드러나는 바, 그들의 매화에 대한 도학자적 인식과 인문학과의 관련성도 살펴보기로 한다.

1) 이동환, <매화문화의 시발점>, 《매화》(생각의 나무, 2003), 40쪽 참조.

2) 박혜숙, <조선의 매화시>, 《한국한문학연구》 제26집, 2000.

김재룡, <退溪 李滉의 梅花詩 研究>, 《우리文學研究》 19집, 2006.

3) 《退溪先生文集》 卷4.

4) 歐純純, 《陸游與楊萬里詠梅詩比較研究》(中正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 98쪽 참조.

5) 洪瑀欽은 <退溪의 《梅花詩帖》에 對한 研究>(영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人文研究》 4권, 1983)에서 退溪가 섭렵했으리라 추측되는 몇 사람의 매화시를 통해 그 시의 美感이 退溪의 매화관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退溪가 宋璟의 <梅花賦>에서 '玉雪爲骨水爲魂'의 매화관을 취하였고, 蘇軾 매화시의 韻字를 빌어 비슷한 내용으로 매화시를 썼으며, 시구의 유사성을 통해 陸游의 매화시도 깊이 이해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楊萬里는 많은 매화시를 남겼으며 退溪에게 직접 영향을 끼쳤었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 2. '道學': 삶의 이정표

朱熹는 “孔子와 孟子가 돌아가시자 천년이나 도학이 전해지지 못했는데, 程顥·程頤 두 선생이 도학을 제창하고 밝혔으니 장하다고 할 만하다”<sup>6)</sup>고 했다. 孔子와 孟子가 죽은 이후 명맥이 끊겼다고 한 도학<sup>7)</sup>이란 즉 공자가 개창한 유가의 전통으로 孔孟의 정신 전통을 지칭하는 것이다. 송대의 도학자들은 홀로 있을 때도 삼가는 태도를 훌륭한 것으로 여기고, 실천하는 것을 높이 사며, 마음을 바로잡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며 극기복례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한다.<sup>8)</sup>

특히 후대 학자들에게 도학의 시조로 여겨졌고, 《宋史》 <道學傳>에 도학의 창시자로 자리매김을 한 周敦頤는 ‘선비’라면 마땅히 성인이 되고 현자가 되는 일을 평생토록 도달해야 하는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방법으로 伊尹을 모범 삼아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顏淵처럼 성인의 정신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한 그릇 밥과 한 쪽박의 물을 먹으며 누추한 거리에서 살면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았던 顏淵의 물질적 욕망을 초탈한 경지<sup>10)</sup>는 도학자들이 추구했던 중요한 가치였으며, 인생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최고의 경지로, 세상의 부귀보다 더욱 존귀한 것이었다.

6) <鄭氏遺書後序>, 《朱文公文集》 卷75: 夫以二先生倡明道學於孔孟既沒千載不傳之後, 可謂盛矣.

7) 道學이라는 것은 北宋의 理學을 가리키는 것으로, 道學이라는 명칭은 理學이라는 명칭보다 일찍 출현하였다. 그러나 北宋의 理學이 당시에는 道學이라고 불렸지만, 南宋 때 이루어진 理學의 분화로 道學이라는 명칭은 南宋 理學의 한 학파, 즉 周敦頤·張載·程顥·程頤·朱熹 등의 학문인 洛學派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명대에 이르러 道學이라는 명칭은 그다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道學이란 理學이 발원하던 시기의 명칭으로 봐야 한다. - 陳來者, 안재호 역, 《宋明性理學》(예문서원, 1997), 32-37쪽 참조.

8) <道學崇黜>, 《宋史紀事本末》 卷21: 近世士大夫有所謂道學者, 其說以謹獨爲能, 以踐履爲高, 以正心誠意, 克己復禮爲事.

9) 周敦頤, <志學>, 《通書》: 志伊尹之所志, 學顏子之所學.

10) 《論語·壘也》: 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回也.”

그래서 周敦頤는 인간의 본성인 ‘誠’을 ‘순수하고 지극히 선한 것’으로 인식하고, 최고의 도덕원리로 삼았다. 周敦頤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도학을 창시했던 程顥와 程頤 형제 또한 정신 수양에 있어 ‘誠’을 적극적으로 함양할 것을 강조하였으며<sup>11)</sup>, 程頤의 再傳弟子이면서 楊萬리가 일생동안 정신적인 스승으로 섬겼던 張浚 역시 ‘誠’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楊萬리가 자신의 서재를 ‘誠齋’라 칭하고 이를 自號로 사용한 것 또한 스승인 張浚에게서 받은 ‘正心誠意’의 가르침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sup>12)</sup> 도학의 시조로 받아들여진 周敦頤에서 도학의 창시자인 二程으로, 또 張浚으로 이어지는 도학자들이 최고의 도덕원리로 인식한 ‘誠’은 天性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中庸》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이며, 성실하게 하려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성실한 것은 힘쓰지 않아도 알며 순하고 넉넉하여 도에 맞는 것이다. 성인은 성실한 사람으로 선을 선택하여 굳게 지키는 사람이다.<sup>13)</sup>

誠이란 천성대로 이루는 것이며, 道는 천성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誠은 사물의 시작이요 끝이니, 誠이 아니면 사물도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誠을 귀하게 여긴다. 誠은 자기를 이루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물을 이룬다.<sup>14)</sup>

도학자들이 추구한 ‘誠’은 바로 하늘의 도이며, 사람과 사물의 천성이다. 하늘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성실함이 ‘誠’이고, 이는 바로 사람이 되찾아야 하는

11) 朱熹 編, <暢潛道本>, 《二程遺書》 卷25: 學貴信, 信在誠. 誠則信矣, 信則誠矣. 不信不立, 不誠不行.

楊時 編, <論道>, 《二程粹言》 卷上: 進學不誠則學雜, 處事不誠則事敗, 自謀不誠則欺心而棄己, 與人不誠則喪德而增怨.

<性理 9>, 《性理大全書》 卷37: 無妄之謂誠, 不欺其次也. 勤以天爲無妄, 動以人欲則妄矣. 無妄者至誠也, 至誠者天之道也.

12) 《宋史·楊萬里傳》: 浚勉以正心誠意之學. 萬里服其教, 終身乃名讀書之室曰誠齋.

13) 《中庸》 20장: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14) 《中庸》 25장: 誠者, 自成也, 而道自道也. 誠者物之終始, 不誠無物. 是故君子誠之爲貴. 誠者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본성인 것이다. 楊萬里 또한 《誠齋易傳》에서 ‘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른바 誠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이다. 군자는 쉬지 않고 일에 힘쓰는데, 쉬지 않는 것 역시 誠이다. 이른바 誠이라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스스로 힘쓰면 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sup>15)</sup>

誠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이며, 망령된 것은 사람의 욕망이다. 조금의 망령됨도 없는 것이 誠의 지극함이다.<sup>16)</sup>

조금의 망령됨 없이 쉬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楊萬里가 생각한 ‘誠’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도이며 사람의 도였다. 스스로 힘쓰면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진대, 세상살이는 힘써도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혼탁해진 정치였다.

楊萬里는 지방 행정의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鐵錢會子의 통용에 반대하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적은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그 상소는 오히려 조정의 미움을 샀고 결국 楊萬里는 폄적을 당한다.<sup>17)</sup> 이에 楊萬里는 사직을 하고 굴곡이 많았던 관직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때 그가 쓴 시는 아래와 같다.

動地風來覺地浮, 지축을 흔드는 바람에 땅도 물위에 뜬 듯 흔들흔들,  
拍天浪起帶天流, 하늘을 때릴 듯한 큰 파도에 하늘까지 함께 흘러가버리네.  
舞翻柳樹知何喜, 춤추는 버드나무 가지는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15) 楊萬里, 《誠齋易傳》卷1: 誠者, 天之道也. 君子以自強不息其不息, 亦誠也. 所謂誠之者, 人之道也, 自強非有使之者也.

16) 같은 책, 卷7: 誠者, 天之道. 妄者, 人之欲. 無一毫之妄, 誠之至也.

17) 紹興3년(1192), 중앙에서 사용하는 鐵錢과 같은 화폐가치를 지닌 鐵錢會子를 강남지역에서 사용하도록 조칙을 내린다. 그러나 鐵錢이 통용되지 않았던 강남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방법이 없고, 또 鐵錢會子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楊萬里는 鐵錢會子 통용의 불편함을 조목조목 들어 상소하고 조칙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楊萬里는 조정의 미움을 사 江東轉運副使織에서 贛州의 知州로 폄적 되는데,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를 시작하였다.

拜殺蘆花未肯休, 질하느라 바쁜 갈대꽃은 쉬지도 않네.  
兩岸萬山如走馬, 양쪽 기슭 강가 수많은 산들은 달리는 말 같고,  
一帆千里送歸舟, 순풍은 천리 길 고향 가는 배를 전송한다.  
出籠病鶴孤飛後, 조롱을 나온 병 든 학 홀로 날아가,  
回首金籠始欲愁! 고개 돌려 바라보고는  
금빛 조롱 때문에 시름겨웠다는 것 깨달았도.

- <發趙屯得風宿楊林池是日行二百里><sup>18)</sup>

금빛 조롱처럼 곱은 그럴 듯해보이지만 그 안에 간혀 자신을 지킬 수 없었던 관직생활에서 벗어난 楊萬里는 고향으로 돌아가 閉門自守하며 삶을 마감하였다.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폐문자수의 삶은 자신의 신념과 지조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으로 바로 ‘誠’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도학자들이 추구하는 삶은 냇가의 물고기와의 같은 삶이었다. 물이 맑고 고우면 그 물에서 헤엄치며 즐기지만, 물이 탁하고 흐리면 그 물을 떠난다. 楊萬里 또한 하늘의 도와 사람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 정계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기에, 개인의 욕심을 위해 권력을 장악한 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속에서 벗어나, 자신을 수양하며 본성을 지키고자 했다. 이는 도피나 은둔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년 가까이 귀양살이로 두문불출했던 장준 또한 재상의 자리에서 권력을 농간했던 秦檜의 치세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에 물러나 폐문자수 하였지만, 그의 학식과 강건한 기상은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楊萬里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楊萬里는 은거하면서 《誠齋易傳》을 완성시켰는데, 이는 17년의 세월을 거쳐 세상을 하직하기 2년 전에야 완성을 한 그의 평생의 열정이 담긴 역작이다. 역사서를 인용하여 《易》을 인간사의 변화 법칙을 강론한 것으로, 그의 폐문자수가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인 退溪 이황이 추구했던 도학 또한 楊萬里가 추구했던 도학처럼 철저히 수양론으로 부터 출발한다. 退溪는 인간은 천리와 인욕

18) 《江東集》(《誠齋集》 卷35).

이 마음속에서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도덕적 완성을 이루려면 인욕을 제거하고, 본성을 이루는 천리를 순조롭게 실현시켜야 한다고 여겼다.<sup>19)</sup>

하늘에 있으면 誠이라 하고, 사람에게 있으면 敬이라 한다. 스스로 노력하여 誠으로 나아가려면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 역시 오직 공경함을 힘쓸 뿐이다.<sup>20)</sup>

誠이란 단지 眞實無妄을 이룬다고 읽는 것이 마땅하다. 조화에 있어서는 곧 진실된 도리가 되며, 인사에 있어서는 진실된 마음이 된다.<sup>21)</sup>

退溪는 하늘처럼 진실된 것을 '誠'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노력하고 모든 것을 공경하면 '誠'을 이룰 수가 있다고 했다. 또 함께 조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誠'은 진실된 도리가 되며,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誠'으로 처신하면 진실된 마음이 된다고 하였다.

退溪는 문과에 급제한 후 주로 홍문관·예문관·성균관 등 文翰職이나 승정원·의정부 등 淸要職을 거쳤지만, 당시 정국이 혼미했기에 언제라도 권신들에 의해 화를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몇 차례 화를 당할 위기를 넘기기도 한다.<sup>22)</sup> 몇 차례의 위기를 넘기고 43세 때 《朱子大典》 간행의 왕명에 따라 교열을 자처하여 전담한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도학연구에 뜻을 두고 사직을 결심했다. 그는 평생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으며, 계속되는 관직 제수에 70여 차례나 사퇴서를 냈다. 벼슬보다는 조용히 물러나 학문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며 명예와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19) 이상은, 《퇴계의 생애와 학문》(예문서원, 1999), 112쪽 참조.

20) <答盧伊齋·別紙>, 《退溪集》 卷7: 在天曰誠, 在人曰敬. 欲自強而進於誠, 豈有他哉! 亦惟用力於敬而已.

21) <答金而精>, 《退溪集》 卷29: 誠字, 只當訓眞實無妄之謂. 而在造化則爲實理, 在人則爲實心.

22) 退溪는 세 차례 화를 당할 뻔 했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급제한 직후인 1534년(중종 29)에 金安老에 의해 史官職을 체직당한 것이다. 두 번째는 1545년(인종1) 을사사화 때 李崟에 의해 화를 당하게 된 것을 李崟의 조카 李元祿이 신명을 걸고 구해 주었고, 세 번째는 1548년(명종 3)에 권련자인 陳復昌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退溪에게 앙심을 품고 해하려고 하였는데, 다행히 그가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해 무사할 수 있었다. - 이성무, <퇴계 이황의 생애와 사상>, 《朝鮮時代史學報》45(2008.6), 187쪽 참조.

그러나 그는 세상의 평판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선비나 은둔주의자가 아니었다. 현실정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학문을 위해 그리고 올바르게 세상을 이끌어갈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 물러나 도학연구와 제자양성, 저작 활동에 몰두한 것이다.

이러한 退溪의 폐문자수 또한 《朱子書節要》, 《心經釋義》, 《宋季元明理學通錄》, 《聖學十道》 등의 저술 작업을 통해 다른 도학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조선의 문화를 살찌우는 계기가 되었다.

楊萬里와 退溪 그들이 폐문자수하면서 늘 가까이 하면서 마음을 다독이는 벗으로 함께 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꺾꽂히 꽃을 피워 봄을 알리는 매화였다. 그 매화의 모습은 풍진 가득한 속세 속에서도 '誠'의 자세로 자신의 명예와 절개를 지키려고 노력한 楊萬里와 退溪가 추구했던 이상적 영혼의 화신이였다.

### 3. '淸眞': 이상적 영혼의 화신

楊萬里는 중국 시문학사상 최고의 다작작가로 알려진 陸游 못지않은 다작작가로, 《誠齋集》에 4,232수의 시를 남겼다. 그중 영물시가 약 500수 정도를 차지하는데, 영물의 대상이 된 시재는 아주 다양했다.<sup>23)</sup> 특히 꽃을 노래한 영물시가 많은데<sup>24)</sup> 그 중에서도 매화시는 楊萬里 영물시의 28%를 차지하는

23) 楊萬里는 다양한 꽃과 과일, 음식, 새, 곤충, 나무, 기후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은 제재를 가져와 영물시를 창작하였다. 특히 楊萬里 이전의 영물시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霞(싸라기 눈)이나 烏臼燭(오구나무에서 채취한 밀랍으로 만든 초)이나, 甕戶(남방 연안 가에 살던 소수 민족)·塘閘(저수지 갑문)·蒲萄架(포도나무 시렁) 등도 영물의 대상이 되었다.

24) 楊萬里 영물시에 등장하는 꽃의 종류는 31가지 정도로, 梅花(매화)·桃花(복숭아꽃)·李花(배꽃)·蓮花(연꽃)·菊花(국화)·桐花(오동나무꽃)·杏花(살구꽃)·榴花(석류꽃)·櫻花(벚꽃)·蘭花(난초)·木犀(물푸레나무꽃)·茉莉花(말리꽃)·海棠(해당화)·薔薇(덩굴장미)·芙蓉(목부용꽃)·蕙花(혜란)·玫瑰(장미)·酴醾(겨우살이풀꽃)·蘆花(갈대꽃)·金鳳花(봉선화)·梔子花(치자꽃)·水仙花(수선화)·米囊花(양귀비꽃)·芍藥花(작약꽃)·瑞香花

140수로, 楊萬里가 영물의 대상으로 얼마나 매화를 선호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全宋詩》에 수록되어 있는 시중 매화를 제목으로 한 시가 4,700수 정도이며, 매화시를 20수 이상을 쓴 시인이 5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楊萬里的 매화 시는 송대 매화시의 약 3%를 차지하는 상당한 분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楊萬里보다 매화시를 많이 쓴 작가로 유일하게 159수를 쓴 陸游가 있지만,<sup>25)</sup> 그의 매화시에 나타난 풍격은 楊萬里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陸游의 매화시는 송대 매화시가 지닌 일반적 상징성 외에도 悲壯美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영웅적 형상을 묘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다.<sup>26)</sup> 이는 도학자적 입장에서 매화를 노래한 양만리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楊萬里的 매화에 대한 사랑은 바로 매화가 자신이 꿈꾸던 영혼의 화신이었기 때문이다. ‘誠齋體’라는 자신만의 시체를 완성한 시인이었지만 <文苑傳>이 아닌 <儒林傳>에 열전이 실릴 정도로 南宋 理學史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楊萬里에게,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매화의 모습은 그가 일생동안 추구했던 내면세계의 모습이였다.

그에게 있어서 매화는 때로는 玉皇家에서 쫓겨난 冰魂이었으며,<sup>27)</sup> 謫仙이었고,<sup>28)</sup> 仙宮에 살고 있는 신선이었으며,<sup>29)</sup> 隱士이며 貴人이었고,<sup>30)</sup> 천상의 병옥의 자질을 품고 있는 꽃<sup>31)</sup>이었으며, 달빛을 타고 신선들의 궁전으로 가는 그런 꽃이었다.<sup>32)</sup>

(천리향)·牧丹花(모란)·山丹花(하늘나리)·牽牛花(나팔꽃)·鷄冠花(맨드라미)·杜鵑花(진달래꽃)·楊花(버들개지) 등이 있다.

25) 程杰, <宋代咏梅文學의 盛況及其原因與意義(上)>《陰山學刊》第15卷 第1期, 2002.2), 31쪽 참고.

26) 王力, <世間尤物無盛衰萬點縈風愈奇絕 - 陸游詩中的梅花形象>《文教資料》, 2008. 12期), 참고.

27) <次東坡先生蠟梅韻>《誠齋集》卷3, 《江湖集》: 梅花已自不是花, 冰魂謫墮玉皇家.

28) <瓶中梅花長句>《誠齋集》卷7, 《江湖集》: 蜀人老張同舍郎, 喚作謫仙農笑領.

29) <西園早梅>《誠齋集》卷16, 《南海集》: 小朵生來便瘦斜, 蕊宮柱殿即渠家.

30) <郡治燕堂庭中梅花>《誠齋集》卷21, 《荊溪集》: 林中梅花如隱士, 只多野氣無塵氣. 庭中梅花如貴人, 也無野氣也無塵.

31) <懷古堂前小梅漸開>《誠齋集》卷11, 《荊溪集》: 何曾天上冰玉質, 却怕人間霜雪寒枝.

32) <至後十日雪中觀梅>《誠齋集》卷37, 《退休集》: 琪樹橫枝吹腦子, 玉妃垂月上瑤臺.

<寄題喻叔奇國博郎中園亭二十六詠><sup>33)</sup> 其六을 살펴보자.

冰爲仙骨水爲肌,  
意淡香幽祇自知.  
靑女素娥非耐冷,  
一生耐冷是橫枝.

얼음처럼 차가운 신선 같은 모습에 물처럼 맑은 피부,  
담담한 뜻 그윽한 향기 저절로 알겠네.  
청녀와 항아도 차가운 것을 견디지 못하는데,  
일생동안 차가운 것을 견디어 내는 것은 매화라네.

범속을 초월하는 신선 같은 모습에 물처럼 맑디맑은 깨끗함, 게다가 세속을 초탈하는 마음에 그윽한 향기까지 지니고 있으니 절로 눈이 가고 절로 마음에 담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다. 겨울철의 추운 바람과 차가운 날씨는 눈과 서리를 관장한다는 선녀(靑女)도 달나라에 산다는 姮娥조차도 견디어 내기 힘들만큼 매섭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제일 먼저 꽃을 피우며 봄의 도래를 알리는 것은 매화이다.

그러한 감격스러운 봄소식을 전하면서도 매화는 여전히 얼음처럼 냉정한 모습 그대로이다. 고난을 극복했다고 환희에 들뜨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관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楊萬里가 추구하는 도학자적 淸眞의 모습이였다.

楊萬里는 자연을 정신적·육체적 자아에 대한 공간적 외계 즉 객관적인 존재로 인식하였다. 순수한 마음 즉 誠心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본받는다면 자연의 법칙과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였다.<sup>34)</sup> 깨달음을 통해 자연만물의 감정을 느끼고, 의인화를 통해 자연만물에 생명력을 부여한 것은 모두 그의 ‘心學論’이 바탕이 된 것이였다.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다.<sup>35)</sup>

33) <朝天集>《誠齋集》卷37).

34) 李伏明, <論楊萬里重建儒學本體論基礎的努力與成就>《吉安師專學報》第20卷, 1999.2期), 5쪽 참조.

35) <庸言十三>, 《誠齋集》卷92: 人者, 天地之心.

내 마음을 살펴보면 천지가 보이고, 천지를 살펴보면 내 마음이 보인다.<sup>36)</sup>  
 천지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알기 위해선, 반드시 대자연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대자연을 관찰하고 느끼면서, 내 마음과 대자연의 마음이 서로 융합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楊萬里가 시를 통해 추구했던 情景融合의 경지인 것이다. 매화를 감상하고 노래하면서 그가 추구했던 것 또한 자신의 마음과 매화가 서로 융합되는 것이었다. 그는 매화와의 일체감을 노래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심지어 매화를 먹어보기도 하고,<sup>37)</sup> 매화를 벼루에 띄어 먹을 갈기까지 하였다.

窗底梅花瓶底老,  
 瓶邊破硯梅邊好。  
 詩人忽然詩興來,  
 如何見硯不見梅。  
 急磨玄圭染霜紙,  
 攄落花鬢浮硯水。  
 詩成字字梅樣香,  
 却把春風寄誰子。

창 아래 매화, 화병 아래 늙은이,  
 화병 옆에 깨진 벼루, 매화 옆은 좋기만 하네.  
 시인은 문득 시흥이 일었는데,  
 어이하여 벼루만 보고 매화는 보지 않는지.  
 급히 먹을 갈아 서릿발처럼 하얀 종이를 물들이는데,  
 떨어진 꽃술은 벼루의 먹물위에 둥둥.  
 시는 글자 글자마다 매화 향으로 향기로우니,  
 봄바람을 누구에게 부칠지나.

- <春興><sup>38)</sup>

먹을 갈아둔 벼루에 떨어져 둥둥 뜬 매화 꽃잎으로 먹물은 매화 향 가득하니, 쓰인 글자 하나하나는 모두 매화 향을 가득 머금게 될 것이다. 글자마다 매화 향을 풍기는 시는 봄바람마저 머금고 있는 듯하다. 매화는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생활 자체였다. 매화 향 가득한 생활 속에서 그는 매화를

노래하며 매화를 닦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듯 楊萬里는 매화 같은 모습으로 깨끗하고 거짓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했다. 그가 추구했던 삶은 茶山 丁若鏞의 《牧民心書》에도 오롯이 담겨있다.<sup>39)</sup> “맑은 선비의 돌아갈 때의 행장은 조출하여 낚은 수레와 야윈 말뿐인데도 그 산뜻한 바람이 사람들에게 스며든다”<sup>40)</sup>며, 공직을 마치고 돌아갈 때의 차림새에 대해 언급한 <歸裝> 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楊萬里에 관련된 일화가 있다.

楊誠齋가 江東 지방의 漕運을 맡고 있을 때 봉급으로 받은 돈이 1만 緡이 되었는데, 그는 官庫 속에 그대로 두고 돌아갔다. 그의 아들 東山도 五羊을 지킬 때 俸錢 7천 緡으로 下戶에 대하여 조세로 내어주었다. 그의 집은 짧은 서까래에 흙으로 섬을 만들어 田畝翁과 같은 모양으로 삼대에 걸쳐 증축 장식하는 일이 없었다. 史良叔이 廬陵을 지키고 있다가 임기가 찰 무렵 양씨의 집을 방문하니 문에 들어서나 마루에 올라서나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님이 없었다. 그래서 畫工에게 명하여 그 집을 그려가지고 갔다.<sup>41)</sup>

建康에 江東轉運副使로 부임했던 楊萬里는 효율적으로 공무를 처리하여 관고에 수 만관의 여윌돈을 남겼고, 이를 후임자의 공무집행을 위해 남겨두었다고 한다. 또 일생동안 청렴과 청빈을 실천하였기에 집안 식구들 모두가 가난한 생활이 습관이 되었고, 퇴직 후 살았던 집은 간신히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집이었으며, 남녀 하인도 서너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sup>42)</sup> 이러한 삶은 그의 청렴결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정녕 그가 닦고자 했던 매화처럼 맑고 산뜻한 삶이었다.

退溪는 106수의 매화시를 남겼는데, 그 중 91수를 직접 골라 창작 동기와

36) <庸言十二>, 《誠齋集》 卷92: 觀吾心, 見天地. 觀天地, 見吾心.

37) <昌英知縣叔作歲, 賦瓶裏梅花. 時坐上九人七首>其四(《誠齋集》 卷5, 《江湖集》): 寒盡春生夜未央, 酒狂狂似醒時狂. 吾人何用餐烟火, 揉碎梅花和蜜霜.

<夜坐以白糖嚼梅花>(《誠齋集》 卷7, 《江湖集》): 剪雪作梅只堪嗅, 點蜜如霜新可口. 一花自可嚼一杯, 嚼盡梅花幾杯酒. 先生清貧似饑蚊, 饑涎流到瘦脛根. 顧江壓糖白於玉, 好伴梅花聊當肉.

<蜜漬梅花>(《誠齋集》 卷8, 《江湖集》): 甕澄雪水釀春寒, 蜜點梅花帶露餐. 句裏略無烟火氣, 更教誰上少陵壇.

38) 《荊溪集》(《誠齋集》 卷13).

39) <治裝>과 <辭朝>(《목민심서》 卷1, <赴任 六條>), 그리고 <歸裝>(《목민심서》 卷6, <解官 六條>), <遞代>(《목민심서》 卷6, <解官 六條>) 등에 기록되어 있다.

40) 清士歸裝, 脫然瀟灑, 弊車羸馬, 其清颯襲人.

41) 丁若鏞 著, 茶山 研究會 譯註, 《譯註 牧民心書 VI》(창작과 비평사, 1985), 182쪽.

42) 羅大經, 《鶴林玉露》甲編 卷4: 楊誠齋自秘書監將漕江東, 年未七十, 退休南溪之上, 老屋一區, 僅庇風雨, 長鬚, 赤腳纔三四人.

시기 등을 행서와 초서로 써서 연대별 순으로 편집하여 《梅花詩帖》을 엮었다. 이는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자작·자필·단일 소재의 단행본 시집이다.<sup>43)</sup> 退溪의 매화에 대한 이런 사랑은 ‘빼어난 절조’와 ‘고결한 기품’을 상징하는 매화에게서 자신이 추구하는 내면세계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화를 ‘玉仙’<sup>44)</sup>·‘梅仙’<sup>45)</sup>·‘花仙’<sup>46)</sup>·‘藐姑山の 신선’<sup>47)</sup>·‘換骨仙’<sup>48)</sup>·‘仙眞’<sup>49)</sup>·‘第一仙’<sup>50)</sup>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매화를 신선들이 사는 藐姑射山の 신선이라고 비유한 <東湖讀書堂梅花暮春時開, 用東坡韻二首>其二<sup>51)</sup>는 다음과 같다.

藐姑山人臘雪村,	막고산 신선님이 선달 눈 내리는 마을로 와,
鍊形化作寒梅魂.	형체를 단련하여 매화의 넋이 되었구나.
風吹雪洗見本眞,	바람맞고 눈에 씻겨 참모습 드러내니,
玉色天然超世昏.	백옥 같은 그 얼굴은 세속 모습 전혀 없네.
高情不入衆芳騷,	높은 정취 지니고서도 《離騷》의 못 꽃에 들지 못했지만,
千載一笑孤山園.	고산의 동산에서 천 년 동안 한 결 같이 웃고 있다네.
世人不識嘆類沈,	공자를 몰랐던 沈諸梁처럼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을 탄식했는데,
今我目擊欣逢溫.	지금 내가 눈으로 보게 되니 溫伯雪子を 만난 것처럼 기쁘네.
神清骨凜物自悟,	맑은 정신에 넘실한 모습 사물의 이치를 절로 깨쳤으니,
至道不假餐霞噉.	지극한 도에 들어 이슬과 천기도 먹을 필요 없네.
昨夜夢見縞衣仙,	어젯밤 꿈에서 흰 옷 입은 신선 만나,
同跨白鳳飛天門.	함께 흰 봉황 타고 천문으로 날아갔네.
蟾宮要授玉杵藥,	달에 가서 옥 절굿공이로 빵은 약을 받아하니,

43) 洪瑀欽, <退溪의 《梅花詩帖》에 對한 研究> (영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人文研究》 4권, 1983).  
 44) <陶山訪梅>, 《退溪先生文集》 卷4: 爲問山中兩玉仙, 留春何到百花天.  
 <再訪陶山梅十絕>其六, 《退溪先生文集》 卷4: 丁寧爲報東君道, 莫使封姨撼玉仙.  
 45) <漢城寓舍盆梅贈答>, 《退溪先生文集》 卷5: 頓荷梅仙伴我涼, 客窓蕭灑夢魂香.  
 46) <和金彦遇二首>其一, 《退溪先生文集》 卷5: 留春相待感花仙, 雪色檀香兩妙天.  
 47) <湖堂梅花暮春始開, 用東坡韻二首>其二, 《退溪先生文集》 卷1: 藐姑山人臘雪村, 鍊形化作寒梅魂.  
 <又雪中賞梅韻>, 《退溪先生文集》 卷5: 迢遙閨苑境, 婉約藐姑眞.  
 48) <代梅花答>, 《退溪先生文集》 卷4: 我是逋仙換骨仙, 君如歸鶴下遊天.  
 49) <次韻奇明彦, 追和盆梅詩見寄>, 《退溪先生文集》 卷4: 歸臥故山思不歇, 仙眞可惜在塵中.  
 50) <溪齋夜起, 對月詠梅>, 《退溪先生文集》 卷5: 羣玉山頭第一仙, 冰肌雪色夢娟娟.  
 51) 《退溪先生文集》 卷1.

織女前導姮娥言. 직녀가 항아에게 말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인도해주었네.  
 覺來異香滿懷袖. 꿈에서 깨어나니 기이한 향기 품과 소매에 가득하니,  
 月下攀條傾一樽. 달 아래 매화가지 끌어당겨 술 항아리 기울였네.

신화속의 막고야산에 산다는 살결이 빙설 같고 아리따운 신녀가 매화의 넋이 된 것 마냥 매화는 고결하고 우아하다. 매화는 따스한 봄날 함께 어울려 피어나는 꽃들과는 달리 눈보라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 梅妻鶴子로 알려진 林逋가 살았던 孤山에서처럼 고아하게 핀다. 뿐만 아니라 매화의 향기는 천상의 향기다. 退溪가 지난 밤 꿈에서 흰 봉황타고 달에 가서 항아에게서 받아온 옥 절굿공이로 빵은 향이다. 退溪는 그 천상의 향기를 뿜어내는 매화 꽃 아래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의 욕심을 덜어내고 초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했다.

退溪는 형의 독려와 當代의 관례에 따라 벼슬에 올랐지만 40대 무렵부터 흐르는 세월 속에서 진전 없는 학문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병으로 인해 일종의 정신적 위기감을 느꼈다. 즉 학문을 통한 자기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불안감마저 느끼게 된 것이다. 그는 욕망에 빠져 참된 마음의 상태를 잃은 當代 사람들과 도도한 탁류처럼 말세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 當代 사회의 정신적 위기를 탐지해냈다.<sup>52)</sup> 그래서 그는 출세주의·공리주의를 떠나 벼슬길을 마다하고 재야에서 은거하며<sup>53)</sup> 수양과 학문에 정진하고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세상의 출세주의에 반하는 退溪의 행동은 <再訪陶山梅十絕>其八<sup>54)</sup>에 암시되어 있다.

一花纔背向堪猜,	꽃 한 송이만 등저도 도리어 시샘을 받는데,
胡奈垂垂盡倒側.	어찌하여 드리운 것마다 모두 거꾸로 피었는가.

52) 유호진, <退溪 詩의 이미지 연구> (《退溪學報》제116집, 2004. 8) 참고.  
 53) 退溪는 西湖의 孤山에 초가집을 짓고 매화를 처로 학을 자식으로 삼고 세상에 나오지 않고 은거하였던 林逋를 흠모하며 그의 삶을 동경했다. 그의 매화시에서도 林逋의 전고를 다룬 시들이 많은데, 시 속에 林逋의 전고가 인용된 시는 앞에서 언급한 <東湖讀書堂梅花暮春時開>其二 외에도 8수 더 있다. 그리고 시 전체가 林逋의 은거를 의미하는 시도 <鄭子中求題屏畫八絕 一 孤山梅隱>, <題金上舍慎仲畫八絕 一 西湖伴鶴> 두 수가 있다.  
 54) 《退溪先生文集》 卷4.

賴是我從花下看,      다행히 나는 꽃 아래에서 보고 있기에,  
昂頭——見心來.      머리 들어 하나하나 마음을 살필 수 있다네.

退溪는 이 시에 다음과 같은 自註를 달았다.

한 꽃이라 운운한 것은 본디 誠齋(楊萬里)의 매화시에서 ‘꽃 한 송이 의지할 것 없이 사람을 등지고 피었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내 일찍이 重葉梅를 남녘 고을 친구에게 얻었으니, 꽃이 핀 것이 하나하나가 모두 땅을 향해 거꾸로 드리워서, 곁에서 보면 화심을 볼 수 없고, 반드시 나무 아래에서 얼굴을 들어 쳐다보아야만 비로소 둥근 화심의 하나하나가 보이며 가히 사랑스러웠다. 두보가 ‘강가의 한 그루가 드리워 피었다’라 이른 것이 아마 이런 종류의 매화를 말하는가 싶다.<sup>55)</sup>

이 시의 첫 구절은 楊萬里的 시 <梅花下小飲><sup>56)</sup>에 나온다.

今年春在臘前回,	올 봄은 설달 전에 돌아와,
怪底空山早見梅.	놀랍게도 빈산에 일찌감치 매화가 피었네.
數點有情吹面過,	정겨운 몇 점 바람 불어오더니,
一花無賴背人開.	꽃 한 송이 의지할 것 없이 사람을 등지고 피었네.
爲攜竹葉澆瓊樹,	대나무 잎사귀로 매화나무에 물을 주고,
旋折冰葩浸玉盃.	얼음 같은 꽃송이 꺾어 옥잔에 담았네.
近節雨晴誰料得?	가까운 시일에 비 개이는 것을 누가 알리오?
明朝無興也重來.	내일 아침 흥이 안 나도 다시 와보리.

일찌감치 핀 매화는 가지를 의지하여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피지 않고, 수줍은 듯 아래를 향해 피었다. 다른 꽃들이 제 모습을 자랑하며 ‘나를 바라봐주세요’ 하듯이 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등지고 땅을 향해 살며시 피었다. 退溪가 바라본 매화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 그래서 退溪는 ‘一花無賴背人開’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매화의 모습을 노래했다.

55) 一花云云, 本誠齋梅花詩‘一花無賴背人開’而云也. 嚮余得此重葉梅於南州親舊, 其著花一皆倒垂向地, 從傍看望 不見花心, 必從樹下仰面而看, 乃得——見心, 團團可愛. 杜詩所謂‘江邊一樹垂垂發者’, 疑指此一種梅也.

56) 《江湖集》(《誠齋集》 卷7).

그런데 退溪가 붙인 自註에 의하면 그가 감상하고 있는 매화는 친구에게서 얻은 것으로 ‘重葉梅’라고 한다. 세계 최초의 매화 전문 서적이라 할 수 있는 范成大的 《范氏梅譜》에 바로 이 重葉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sup>57)</sup> 그것은 꽃봉오리가 풍성하고 꽃잎이 여러 겹으로 층층이 되어있어 활짝 피면 작은 白蓮과 같은 매화이다. 그렇기에 退溪가 본 매화는 重葉梅가 아니다. 退溪가 본 매화는 꽃송이가 모두 거꾸로 드리워진 倒心梅(映水梅)였고,<sup>58)</sup> 楊萬里的 <梅花下小飲>에 나온 매화 역시 땅을 향해 거꾸로 꽃을 피운 倒心梅였다.

꽃송이가 땅을 향해 드리운 모습을 보고 등지다(背)와 시샘(猜)이라는 시어로 묘사한 것은 바로 退溪의 반출세주의를 표명한 것이다. 매화뿐 아니라 꽃이란 일반적으로 모두 태양을 향해 위로 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등지고 한 송이라도 거꾸로 피어난다면 이상할 것인데, 온통 거꾸로 피어 있다는 것은 상식을 뒤엎는 것이다. 이는 세속과 다른 독특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유하는 것이다. 이를 이상하다 하지 않고 거꾸로 피어난 꽃 하나하나를 고개 들어 올려다보는 退溪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에 반하는 매화와 자신을 동일시한 표현이다.

退溪는 심지어 세속적 사람들과 동화되기 힘들다고 고백하기 까지 했다.<sup>59)</sup> 그러나 도학자로서 수양과 학문에 정진하고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던 그였기에 속세를 떠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속세에서 살면서 탈속한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했다. 다른 꽃들과 함께 피어있어도 남다른 품격이 돋보이는 매화는 바로 속세에 있으면서도 속세를 벗어난 군자의 모습, 즉 退溪가 바라는 선비의 모습이었다.

그러한 매화는 退溪의 삶에서知己이자 동반자였다. 매화를 너무나 사랑했

57) 花頭甚豐, 葉重數層, 盛開如小白蓮, 梅中之奇品. 花房獨出, 而結實多雙, 尤爲瑰異. 極梅之變, 化工無餘巧矣. 近年方見之. 蜀海棠有重葉者, 名蓮花海棠, 爲天下第一, 可與此梅作對.

58) 이상희, 《매화》(넥서스 BOOKS), 75-76쪽 참조.

59) <秋日登臺>, 《退溪先生文集》 卷4.

出世能無友善才,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인재 사귄 능력 없었고,
索居恆恐壯心頹.	쓸쓸히 거처하며 항상 씩씩한 마음 무너질까 걱정하였네.
青山巖巖終難辨,	푸룻푸룻 젊었을 때는 끝내 가까이 가기 어렵더니,
白髮森森漸不猜.	흰머리 성성하니 점차 시샘도 없어지네.



기에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까지 했던 그는 5組 12수에 달하는, 자신과 매화 간의 증답시를 남기기도 했다.<sup>60)</sup> 이는 그가 매화와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했던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漢城寓舍盆梅贈答>을 감상해 보자.

頓荷梅仙伴我涼,	고맙게도 梅仙 그대가 나의 외로움 함께 해주어,
客窓蕭灑夢魂香.	객지살이 쓸쓸해도 꿈만은 향기로웠다네.
東歸恨未携君去,	귀향길 그대와 함께 못가 한스럽지만,
京洛塵中好艷藏.	한양의 풍진 속에서도 고운 자태 간직하게나.
聞說陶仙我輩涼,	듣건대 陶仙 그대도 우리처럼 외로운 이라고 하여,
待公歸去發天香.	그대가 가시는 때에 맞춰 천향을 꽃 피웠다오.
願公相對相思處,	바라건대 그대 함께 바라볼 때나
	헤어져 서로를 그리워할 때도,
玉雪清真真善藏.	백옥 같은 눈처럼 맑고 참됨 고이 간직하소서.

退溪는 69세가 되던 해 1월에 관직을 제수 받고 한양에 머물렀다. 여러 차례 사양 끝에 사직을 허락받고 3월에 도산으로 내려가게 되자, 한양을 떠나기 전에 이 시를 지어 객지 생활동안 위로가 되었던 분매에게 작별을 고한 것이다. 그는 한양에서의 외로움을 달래준 매화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쓸쓸한 객지생활이 매화로 인해 향기로우 수 있었다고 말한다. 아울러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아쉬워하면서, 한양은 원래 매화가 있을만한 곳이 못되지만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노지에서는 매화의 생장이 불가능한 한양에서, 분재라도 매화를 곁에 두고 자 했던 退溪의 남다른 애착은 한양의 벼슬살이에 대한 그의 또 다른 생각을 짐작하게 한다.

60) 退溪가 처음으로 창안한 매화 문답시는 奇大升·權好文·李遂 등 退溪의 문인 제자들에게 의해 차운되었을 뿐 아니라 후대의 문인 학자들에게 널리 계승되었다. 金壽增·金昌翁·李眞望 등이 여러 수의 매화문답시를 남기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이다. 이들의 매화 문답시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지향은 매화를 대상으로 내면의 靑眞을 되새기며 出處의 의리를 자문 자답 하는 것이다. 사대부에게 매화는 은일과 지조의 상징으로 워낙 뚜렷이 각인된 것이기에 매화시는 기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음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다. — 신익철, <18세기 매화시의 세 가지 양상> (《한국시가연구》 제15집, 2004.2), 121쪽.

그리고 매화는 자신을 알아주는 退溪를 전송하며 최고의 선물인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함께 서로를 마주하고 있을 때나 또 헤어져 서로를 그리워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맑고 참된 마음을 항상 간직하길 바란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한다. 매화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은 바로 退溪 스스로가 자신에게 한결같이 바라고 다짐했던 것이었다.

도산으로 돌아온 退溪는 계속해서 서울의 분매를 그리워하였고,<sup>61)</sup> 그 그리움을 헤아린 문인 金就礪가 자신의 손자에게 서울의 분매를 도산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여<sup>62)</sup> 결국 오매불망 그리워했던 분매와 다시 해우할 수 있었다.

### 3. '梅兄': 도학자적 유대감의 상징

<考終記>에는 退溪 임종 전후의 모습이 그의 마지막 병상을 지켰던 제자들에게 의해 꼼꼼하게 기록되어있다.

12월 3일. 설사를 하셨다. 분재 매화가 곁에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梅兄에게 불결하니, 마음이 절로 미안하구나.”<sup>63)</sup>

12월 8일. 아침에 매화 화분에 물을 주라고 하셨다. 이 날은 날씨가 맑았다. 오후 다섯 시 쯤 갑자기 흰 구름이 집 위로 몰려들더니 눈이 한 치 남짓 내렸다. 조금 뒤 선생님께서는 누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셨다. 부축하여 일으키자 앉으신 채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구름은 흩어지고 눈이 견혔다.<sup>64)</sup>

61) <挹清主人金愼仲益養梅花, 至月晦日, 溪莊大雪中, 寄來梅一枝二絕. 清致可尙, 次韻奉酬. 因記得去春都下, 得盆梅甚佳, 未幾東歸. 思之未已, 於後併及之>其二(《退溪先生文集》 卷5): 痛憶京師二月中, 盆梅歸袖挹仙風. 那知此日高齋裏, 幻出黃鍾律未窮.

62) <都下盆梅, 好事金而精, 付安道孫兒, 船載寄來, 喜題一絕云>, 《退溪先生文集》 卷5: 脫卻紅塵一萬重, 來從物外伴癯翁. 不緣好事君思我, 那見年年冰雪容.

63) 十二月 三日. 痢泄. 盆梅在其傍. 命移於他處. 曰: 於梅兄不潔, 心自未安耳.

64) 十二月 八日朝. 命灌盆梅. 是日. 晴. 酉初. 忽白雲坌集宅上. 雪下寸許. 須臾先生命整臥席. 扶起而坐逝. 卽雲散而雪霽.

退溪는 죽음을 앞두고 병세가 위중해져 기력이 쇠해질 대로 쇠해졌을 때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죽음을 예감했을 때도 매화를 잊지 않았다. 이 기록은 退溪의 평생에 걸친 애절하고도 끔찍한 매화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보여준다. 退溪는 매화 화분을 옹기라고 하면서 ‘梅兄’이라는 호칭을 썼는데, 이 호칭은 그의 매화시에도 사용되었다.

松菊陶園與竹三,	도연명 동산의 소나무와 국화는 대나무와 함께 셋이라는데,
梅兄胡奈不同參.	매형은 어찌하여 함께 끼지 못하였는가.
我今併作風霜契,	내 이제 매형까지 아울러 풍상계를 맺으리니,
苦節清芬儘飽諳.	곶은 절개 맑은 향기는 내가 잘 안다오.

- <陶山雜詠十八絕 一 節友社>

退溪는 도산서당 옆에 소나무·국화·대나무·매화를 심어 놓고 늘 감상하면서 절개 있는 벗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節友社’라고 했다. 이 시는 바로 그 ‘節友社’를 노래한 것이다. 退溪는 도연명의 동산에 끼지 못한 ‘梅兄’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도연명 동산의 소나무·국화·대나무에 매화까지 더하여 ‘節友社’를 만들고 그 네 벗들과 함께 바람과 서리를 견디어 내는 風霜契를 맺고자 한다. 그리고 ‘梅兄’을 위로한다. 도연명은 미처 알아주지 못했지만 그대의 곶은 절개와 맑은 향기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매화를 ‘梅兄’이라고 일컫는 것의 유래를 살펴보면, 黃庭堅이 추운 계절에 피어 향기가 좋은 꽃 가운데 산반은 수선의 아우이며 매화는 수선의 형이라고 한 것<sup>65)</sup>과 한 해에 제일 먼저 피는 매화를 모든 꽃의 형에 가을에 늦게 피는 국화를 아우에 비유한 ‘梅兄菊弟’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sup>66)</sup> 그러나 황정건 시의 ‘梅兄’은 수선화에 대한 손 위 형제라는 의미로 쓴 것이지, 매화에 대한 별칭

65) <王充道送水仙五十枝, 欣然會心, 爲之作詠>: 凌波仙子生塵襪, 水上輕盈步微月. 是誰招此斷腸魂, 種作寒花寄愁絕. 含香體素欲傾城, 山礬是弟梅是兄. 坐對眞成被花惱, 出門一笑大江橫.  
66) 이상희, 《매화》(넥서스 BOOKS), 24쪽 참조.

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시 속에서 매화를 ‘梅兄’이라는 호칭한 것은 楊萬里에 의해 시작되었다. 楊萬里는 知己로서 매화와 남다른 감정 교류를 한다고 생각했기에, 매화를 형이라 부르며 자신은 매화의 동생으로 여겼다. 이렇듯 楊萬里에 의해 생겨난 ‘梅兄’의 호칭은 남송 시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매화시 속에 등장하게 되지만, 아무래도 楊萬里의 시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다.<sup>67)</sup>

酒兵半已臥長瓶,	술은 반밖에 안 마셨는데 긴 병은 누워 덩굴고,
更看梅兄巧盡情.	다시금 매형을 바라보니 내 마음과 딱 맞아떨어져.
醉插寒花望松雪,	취한 채 꽃을 꽂고 눈 쌓인 소나무를 바라보는데,
人間曾有箇般情.	사람이 일찍이 이렇게 맑아진 적이 있던가!

- <昌英知縣叔作歲, 賦瓶裏梅花. 時坐上九人七首>其三<sup>68)</sup>

道是梅兄不解琴	매형이 거문고를 탈줄 모른다고 말하지만,
南枝風雪自成音	남쪽 가지 눈바람에 절로 소리를 냈다오.
玉繩低後金盆落	빗방울 떨어진 후 금빛 화분에서 매화꽃 지니,
獨與此君談此心	홀로 그대와 이러한 마음 얘기하고파.

- <和張功父梅花十絕句>其七<sup>69)</sup>

매화는 楊萬里에게 자신을 알아주는 知己였고, 세상사에 지친 그에게 그저 바라만 봐도 위안이 되는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매화를 꽃으로만 보지만, 楊萬里에게 매화는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聖物이었고, 거문고보다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리고 그런 매화가 지면 먹먹해진 가슴을 보듬으며 매화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곤 했다.

‘兄’이란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이를 정중하게 부를 때 사용되는 호칭이다. 楊萬里와 退溪가 매화를 ‘梅兄’이라고 한 것은 대상은

67) 《四庫全書》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梅兄’을 사용한 시인들은 楊萬里·張鎡·韓泐·釋居簡 등 약 24명의 시인들이다. 그러나 楊萬里(6회)와 釋道璨(3회), 方岳(2회), 釋居簡(2회)을 제외한 시인들은 모두 ‘梅兄’이라는 호칭을 단 한 번만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68) 《江湖集》(《誠齋集》 卷5).  
69) 《朝天集》(《誠齋集》 卷24).

단순히 인격화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매화에 대한 知己로서의 신뢰와 존중의 뜻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쉽지 않았던 벼슬길에서,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엔 각박하기만 했던 세상사에서 일생동안 그들의 위안이 되어 주었던 매화. 그래서 楊萬里와 退溪의 매화시속의 매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苦海와 같은 인생을 함께 헤쳐 나가는 동지이자, 버팀목이었고, 또한 理想이었다.

楊萬里는 66세에 관직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전원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관직 제수의 조서를 사양하며 이름뿐인 직함조차 받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80세의 노구에도 전횡을 일삼는 외척 韓侂胄의 만행을 전해 듣고,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밤을 지새우며 한탄주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한 상소문을 쓰고는 기력이 쇠해져 그대로 세상을 하직했다. 그가 왜 매서운 추위에 굴하지 않는 매화에 애착을 가졌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退溪는 만년에 벼슬길을 마다하고 재야에서 수양과 학문에 정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매화시 대부분은 바로 그 시기에 쓰였다. 67세 때 退溪는 예조판서의 직책을 致仕하며 자신의 무능력과 부덕함 늙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상을 속이는 것 같아 부끄럽다고 하였다. 그는 흑한 속에 피어나는 매화처럼 도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 4. 나가는 말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많은 선비들이 폐문자수를 하며 자신의 신념과 지조를 지키려고 애썼다. 특히 권신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희롱할 때면 그러한 선비들이 더 늘어나, 은거하며 사립문을 닫아걸고 학문에만 전념했다. 楊萬里와 退溪 또한 자신들의 이상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벗어나 폐문자수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학문을 닦았다. 그들의 그런 도학자적 모습은 흑한에 꽃을 피우며 그윽한 향을 뿜어내는 매화화도 닮아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매화는 그 성품이 곧고 냉철하며, 흑심한 추위와 눈보라를 강인한 정신으로 호트러짐 없이 견디어 내는 꽃으로 인식된다. 굽힐 줄 모르는 절개와 지조와 따뜻한 가슴이 있기에 또한 아름다운 미소를 지니고, 영혼을 맑게 하는 清香을 간직한다. 그래서 楊萬里와 退溪는 매화를 단순한 완상물이 아닌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표상하는 등가적 존재로 인식하였다.

그들의 매화시 속에 묘사된 매화는 단순한 물질계의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초월하여 발견된 인문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남송이라는 시대적 문화적 상황과 16세기 조선의 성리학 융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楊萬里와 退溪의 매화시는 매화상징의 일반적인 함의를 공유하면서 그들의 개성과 경험에 따라 독특하고 창조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온 계곡 가득 핀 매화를 감상하다 그 아름다운 풍경에 넋이 나가 한 잔의 술과 함께 매화 꽃잎을 먹으며 매화가 되어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매화 꽃잎 띄운 먹물로 시를 써보기도 하고, 進退의 도리가 문제 될 때 속마음을 토로하고 함께 문답을 나누기도 하는 사이였다. 그렇기에 매화는 단순한 취미의 대상을 넘어 '兄'처럼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인생의 선배가 되었으며, 자신을 알아주는 知己가 되었다.

매화를 흑애하였던 만큼 그들의 삶도 매화와 닮아갔기에, 그들이 노래한 매화시 또한 다른 매화시와는 달리 물아일체의 완전한 교유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 <參考文獻>

- 楊萬里, 《楊萬里集箋校》, 中華書局, 2007.  
 李 滉, 《退溪先生文集》(《한국문집총간》29·30), 민족문화추진회, 1989.  
 退溪문집독회 역, 《퇴계선생 매화시》, 교육과학사, 2004.  
 홍승균·이윤희 역, 《퇴계선생언행록》, 퇴계학연구원, 2007.  
 茶山 硏究會, 《譯註 牧民心書》, 장작과 비평사, 1985.

陳來著, 안재호 역, 《宋明性理學》, 예문서원, 1997.  
 이상은, 《퇴계의 생애와 학문》, 예문서원, 1999.  
 기세춘, 《성리학개론》 상·하, 바이북스, 2007.  
 이상희, 《매화》, 넥서스BOOKS, 2002.  
 이어령 편, 《매화》, 생각의 나무, 2003.  
 于北山, 《楊萬里年譜》, 上海古籍出版社, 2006.  
 蕭翠霞, 《南宋四大家詠花詩研究》, 文津出版社, 1994.  
 歐純純, 《陸游與楊萬里詠梅詩比較研究》, 中正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  
 洪瑀欵, <退溪의 《梅花詩帖》에 對한 研究>, 《人文研究》 4권, 영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83.  
 閔丙秀, <退溪詩의 形象化方式에 대하여>, 《韓國漢詩研究》 5권, 1997.  
 박혜숙, <조선의 매화시>, 《韓國漢文學研究》 제26집, 2000.  
 鄭羽洛, <退溪 李滉의 事物認識方法과 그 詩의 形象>, 《東方漢文學》 24집, 2003.  
 신익철, <18세기 매화시의 세 가지 양상>, 《한국시가연구》 제15집, 2004.2.  
 유호진, <退溪 詩의 이미지 연구>, 《退溪學報》 제116집, 2004.8.  
 김재룡, <退溪 李滉의 梅花詩 研究>, 《우리文學研究》 19집, 2006.  
 이성무, <퇴계 이황의 생애와 사상>, 《朝鮮時代史學報》 45집, 2008.6.  
 李在鎰, <梅花詩에 나타난 李滉의 意識指向>, 《東洋漢文學研究》 27집, 2008.  
 李伏明, <論楊萬里重建儒學本體論基礎的努力與成就>, 《吉安師專學報》 第20卷, 1999, 2期.  
 程杰, <梅花象徵生成的三大原因>, 《江蘇社會科學》, 2001, 第4期.  
 \_\_\_\_\_, <宋代詠梅文學의 盛況及其原因與意義(上)>, 《陰山學刊》 第15卷 第1期, 2002.2.  
 \_\_\_\_\_, <宋代詠梅文學의 盛況及其原因與意義(下)>, 《陰山學刊》 第15卷 第2期, 2002.4.  
 榮斌, <一代詠梅成正聲 — 論宋代詠梅詩詞創作熱>, 《東岳論叢》 第24卷 第1期, 2003.1.  
 陳小芒·廖文華, <論詠梅詩的文化意蘊>, 《閩江學院學報》第24卷 第6期, 2003.12.  
 周靜, <梅生不是遇萬里, 萬里原是梅花精 — 論楊萬里的梅花情結>, 《宜賓學院學報》 第10期, 2007.10.  
 韓梅, <論楊萬里詠梅詩的新變>, 《名作欽賞》, 2008.8.  
 王力, <世間尤物無盛衰萬點榮風愈奇絕 — 陸游詩中的梅花形象>, 《文教資料》, 2008, 12期

<中文提要>

中國南宋詩壇“中興四家”之一楊萬裏和韓國朝鮮時期的大儒李滉都既爲道學名家, 也是著名詩人。二人就離開混亂的官場, 以閉門自守、勉力爲文度過餘生, 他們的這種處世態度不是逃避, 而是根據儒家傳統的“窮則獨善其身, 達則兼濟天下”的出處觀所形成的將避世隱居和砥礪志節合二爲一的一種生活方式, 二人服膺“誠者, 天之道也”的《中庸》觀, 終生以“正心誠意”和“誠、敬”的態度專注於研究學問、培養後學、從事著述。

楊、李二人如此的生活態度和處世方式很像凌霜怒放、卓然不群的梅花, 他們確也留下了大量的吟詠梅花的詩作。在這些詩中他們有時直接歌頌梅花, 有時又跟梅花談天, 甚至稱呼梅花爲“梅兄”, 表現出對梅花的極度尊敬和喜愛。從二人在詠梅詩裏對梅花傲骨風姿、堅貞氣節的由衷讚美, 可見梅花在他們的藝術視界裏已不是單純的珍玩, 而成爲一種寄託自己精神, 甚至與其等同的形而上學的存在。他們在這些詠梅詩中, 實達到了物我一體的境界。

通過對楊萬裏和李滉所留下的一百餘首詠梅詩的探討, 可見二人道學家式的人生態度深刻地影響到了其詩歌創作, 而這道學風格和其創作思想、美學旨趣又有著密切聯系。

關鍵詞: 楊萬里、退溪、誠、道學家、詠梅詩、梅兄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2.27	2009.3.20	2009.4.2	2009.4.10	2009.4.30